

광주시장애인체육회, 홈트레이닝 영상 만든다

생활체육지도자들과 함께 제작 밴드운동·필라테스 등 운동법 등 음성·자막 넣어 쉽게 따라하도록 제작 외부활동 힘든 장애인들 면역력 유지 한달간 주 2회 이상 영상 올리기로

광주장애인체육회와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에 제약 받는 장애인을 위해 홈트레이닝 영상을 제작한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코로나19 때문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장애인 선수 및 가족, 동호인이 가정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생활체육 영상(홈트레이닝) 시리즈를 자체 제작해 온라인 홈서비스로 보급한다"고 밝혔다.

홈트레이닝 영상제작은 장애인들이 운동하지 못해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 조건인 체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시작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홈트레이닝' 영상에는 밴드운동, 스트레칭, 생활체조, 필라테스 등의 다양한 운동법이 담기며, 3~5분 분량으로 제작됐다. 누구나 손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동작과 설명으로 구성해 기초체력 증진과 정신 스트레칭을 통한 유연성 강화 및 근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청각·시각 장애인 등 모든 유형 장애인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음성, 자막까지 넣어 제작될 예정이다.

시 장애인 체육회는 영상을 한 달간 주 2회 이상



광주시장애인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홈트레이닝' 영상에서 가벼운 운동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장애인체육회 제공>

올려 시장장애인체육회 유튜브, 페이스북, 밴드,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많은 장애인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영상제작에는 시장장애인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지도자가 참여했다.

홍남별 지도자는 "현장에서 수업 할 때와는 다르게 영상을 찍는게 많이 쑥스러운데, 장애인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촬영에 임하고 있다. 부족하지만 이 영상과 함께 꾸준히 운동을 따라하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아영 지도자는 "2개월 여 장애인 가족들을 못 보니 너무 답답하다.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인데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지나가기를 바란다면서, 영상을 많이봐주시고 격려해달라"고 말했다.

광주장애인체육회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학생들의 온라인 개학에 따른 직원 자녀들의 돌봄 및 학습지원을 위해서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직원들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조정을 통한 재택근무 등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여자배구 연봉 총상한 현실화 논란...핵심은 투명성

6개 구단 20억 이상 인상 큰틀 합의 속 옵션 포함·시행 시기 놓고 의견 엇갈려

프로배구 여자부 6개 구단 단장들이 9일 오전 열리는 한국배구연맹(KOVO) 이사회에서 샐러리캡(연봉 총상한) 설정을 두고 마지막으로 머리를 맞댄다.

6개 구단 실무진들은 14억원에 묶인 여자부 각 구단 샐러리캡을 20억원 이상으로 올리기로 이미 합의했다.

다만, 상한액을 얼마로 못 박을지, 샐러리캡에 당장 승리 수단 등 연봉 외 옵션을 포함할 것인지, 새로운 샐러리캡을 2020~2021시즌부터 당장 시행

할 것인지 두고 구단 간 의견이 갈린다. 현재 양상은 흥국생명과 나머지 5개 구단의 1대 5 대결 구도다.

흥국생명은 당장 옵션을 샐러리캡에 포함하는 것은 무리이며, 남자부 구단처럼 샐러리캡을 해마다 조금씩 올려 3년 유예 조치 후 모든 선수 연봉과 옵션을 100% 투명하게 공개하자고 주장한다.

남자부 7개 구단은 지난해 12월 이사회에서 샐러리캡 '현실화'를 위해 3년에 걸쳐 상한액을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샐러리캡은 2019~2020시즌 26억원에서 순차적으로 각각 31억원, 36억원, 41억5000만원으로 증액된다.

흥국생명을 제외한 5개 구단은 당장 다음 시즌부

터 샐러리캡에 모든 옵션을 포함하고 샐러리캡을 20억원으로 확정하자고 맞선다.

주요 골격 짚어봐야 할 점은 샐러리캡 논의가 나온 배경이다.

남녀 각 구단은 현재 선수들의 몸값을 실제로 반영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샐러리캡을 현실화하는 데 공감했다.

이는 리그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다. 성공한 선수를 우상으로 삼아 유망주층도 두꺼워지는 효과도 기대해볼 만하다.

이번 시즌까지 남녀 각 구단이 샐러리캡 내에서 팀을 운영했다고 곧이곧대로 믿는 배구인은 사실상 명도 없다.

배구계에 따르면, 남자부를 선도하는 몇 구단은

한 해 100억원 정도를 운영비로 쓴다. 여자부 리딩 구단도 50억원가량을 지출한다.

프로 스포츠 구단 연간 운영비의 절반 이상을 연봉을 포함한 선수 인건비가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간 샐러리캡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졌는지 알 수 있다.

이에 남자부 구단이 먼저 현실에 맞추자고 포문을 열었고, 여자부 구단도 보조를 맞춰가는 모양새다.

선수 연봉을 100%에 근접하게 공개하겠다고 '통근 결단'을 내린 만큼 여자부 샐러리캡 액수도 20억원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실상에 가까운 액수로 좀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는다.

샐러리캡을 연봉과 옵션 포함해 20억원에 묶으면 또 한 번 '눈 가리고 아웅 한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

'고연 뒷돈 없이 선수단 운영이 가능할까'를 의심하는 시선이 늘 수밖에 없다.

/연합뉴스

도쿄올림픽 종목별 예선 내년 6월 29일까지 완료 최종 엔트리 마감은 7월 5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1년 연기된 도쿄하계올림픽과 관련해 개정된 종목별 예선 원칙을 8일(한국시간) 발표했다.

올해 7월 24일에 열기로 한 도쿄올림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1년 뒤인 2021년 7월 23일 개막하는 쪽으로 연기됐다. 명칭은 그대로 2020 도쿄올림픽이다.

바뀐 주요 원칙을 살펴보면, 도쿄올림픽 본선 출전권이 걸린 종목별 국제연맹(IF)의 예선은 2021년 6월 29일까지 모두 끝나야 한다.

각 나라 국가올림픽위원회(NOC)의 최종 엔트리 마감 시한은 2021년 7월 5일이다.

IF는 선수들과 NOC에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 IOC의 시한에 맞춰 자격 예선 일정을 최대한 서둘러 결정하기로 했다.

IOC는 또 올림픽 출전권 배분 방식도 확정했다. 알려진 대로 이미 NOC 몫 또는 선수 개인 몫으로 도쿄올림픽 티켓을 확보한 이들은 그대로 출전권을 유지한다.

도쿄올림픽에 나오는 선수를 약 1만1000명으로 추산하면 57%인 6270명 정도가 이미 티켓을 따고, 나머지 43%인 약 5000명이 내년 6월 29일까지 열리는 각 종목 올림픽 예선과 랭킹 포인트가 걸린 종목별 국제대회에서 도쿄행에 도전한다.

IOC는 아울러 이미 출전권을 확보한 선수의 내년 도쿄올림픽 출전을 인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IF가 나이 제한을 푸는 것도 가능하다고 재확인했다.

올림픽 남자 축구에는 23세 이하(U-23) 선수만 출전할 수 있다는 규정을 국제축구연맹(FIFA)이 내년 올림픽에 한해 일시 해제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IF가 나이 제한 해지에 따른 선수들의 안전·의학적 위험을 제기한다면 예외를 두기로 했다.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잇단 위반 토트넘 선수단 구설수 올라

손흥민(28)의 소속팀인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 선수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강조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구설에 올랐다.

가디언, 데일리메일 등 영국 언론은 8일(한국시간) 토트넘의 조제 모리뉴 감독이 여러 사람과 야외에서 운동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개돼 불거진 논란에 대해 보도했다.

이들이 모인 곳은 북런던 지역의 한 공원이며, 사진 속 인물 중 한 명은 토트넘의 미드필더 탕기 은돔벨레라는 게 매체들의 설명이다.

선수단 구성원이 훈련을 위해 밖에서 만난 점, 일정 간격을 두지 않고 가까이 서 있는 점 모두 비판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외출을 자제하고 운동도 혼자 또는 가족끼리만 하라는 영국 정부 지침에 위배되고, 거리두기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다빈손 산체스와 라이언 세세농도 나란히 서서 조깅하는 모습이 포착돼 소셜 미디어에 올라왔다. 두 선수는 거의 딱 붙어서 달리는 모습이

다. 세르주 오리에도 사진과 바로 옆에서 달리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토트넘 구단은 선수들이 코치와 원적으로 만나 피지컬 훈련을 소화하고, 모리뉴 감독도 참여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힘쓰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이에 반하는 모습이 알려지며 머쓱해진 셈이다.

한편 손흥민은 2018년 아시아게임 금메달 획득으로 받은 병역특례 혜택에 따라 기초군사훈련을 받고자 지난해 말 귀국했다.

/연합뉴스

'위조 여권' 호나우지뉴 보석금 19억 내고 풀려나

교도소 수감 생활로 오랜만에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이목을 끌었던 브라질 축구 스타 호나우지뉴(40)가 거액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다

로이터통신은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파라과이 사법당국에 수감된 호나우지뉴와 그의 형 호베르투가 곧 석방돼 가택 연금에 들어간다고 8일(한국시간) 보도했다.

호나우지뉴 형제가 낸 보석금은 160만 달러(약 19억4000만원)에 달한다.

파라과이 법원은 이날 "호나우지뉴 형제가 파라과이를 떠나지만 않는다면, 거액의 보석금을 낸 상황에서 굳이 교도소에 붙잡아둘 필요가 없다"며 보석을 허용했다.

호나우지뉴 형제가 완전한 자유를 맞게 되는 것은 아니다.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의 한 4성급 호텔에서 지내며 언제 열릴지 모를 재판을 기다려야 한다.

호나우지뉴는 지난해 4월 형과 파라과이 국적의

위조 여권을 가지고 파라과이에 입국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입국 당시엔 위조 사실이 발각되지 않았다가 몇 시간 뒤 적발돼 호텔에 들이닥친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6일 구속돼 수도 아순시온의 교도소에 수감됐다.

스타의 '감방 생활'은 큰 화제를 모았다. 호나우지뉴는 교도소에서 열린 풋살대회에서 팀을 우승으로 이끌고, 다른 수감자들과 축구를 하는 모습이 공개되는 등 팬들에게 의도치 않은 재미를 선사했다.

현역 시절 신기에 가까운 테크닉으로 '외계인'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호나우지뉴는 브라질을 2002 한일 월드컵 정상으로 이끄는 등 굵은 족적을 남긴 '대 스타'다. 프로 무대에서는 파리 생제르맹(프랑스), FC바르셀로나(스페인), AC밀란(이탈리아) 등 명문 팀에서 활약했고, 국제축구연맹(FIFA) 올해의 선수상(2004, 2005년), 발롱도르(2005년) 등을 수상했다.

/연합뉴스



위조 여권 사용으로 교도소에 수감됐던 브라질 축구 스타 호나우지뉴가 7일 보석금 19억원을 내고 풀려나 친구와 기쁨의 포옹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2관	인버블맨
3관	오픈 더 도어
4관	n번째 이별중
5관	오픈 더 도어, 신과 나: 100일간의 거래, 더 터닝, 스케어리 스토리: 어둠의 속삭임
9관	1917, 주디
7관	씨네커플 월드 워 Z, 정직한 후보
8관	씨네커플 1917, 더 터닝, 기도의 힘, 스케어리 스토리: 어둠의 속삭임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기획전시
강남구 (화양연화)
2020.4.10(금) ~ 5.10.(일)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

기획공연 포커스
김영욱&이효주 듀오 콘서트
4.9(목) PM 7:00
광주문화예술회관 유튜브 생중계

기획공연-11시 음악산책
유영욱의 베토베니즘
4.29(수) AM 11:00
광주문화예술회관 유튜브 생중계